

韓國應急救助學會誌 第18卷 第3號, 63~75 (2014, 12)  
 Korean J Emerg Med Ser Vol. 18, No. 3, 63~75 (2014, 12)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http://dx.doi.org/10.14408/KJEMS.2014.18.3.063>

##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sup>†</sup>

황성학 · 엄동춘\*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Factors influencing the image abou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obs in paramedic students<sup>†</sup>

Seong-Hak Hwang · Dong-Choon Uhm\*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aejeon University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age abou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EMT) job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mage of EMT jobs among students of this department.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532 paramedic students in the cities of D, G, and J between May 28 and June 19, 2013.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version 21.0 program.

**Results:** The image about EMT jobs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However, the image about EMT jobs was negatively related to grade and hospital practice experience.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djusted  $R^2$  value was .220 ( $p < .001$ ).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self-esteem of paramedic students should be emphasized. Further research on the image about EMT jobs in the hospital practice setting is needed.

**Key words:** Students,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ob image, Self-esteem

투고일: 2014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4일

\*Corresponding Author: Dong-Choon Uhm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aejeon University, 96-3, Yongun-dong, Dong-gu, Daejeon, 300-716, Republic of Korea

Tel: +82-42-280-2941 Fax: +82-42-280-2946 E-mail: dchuhm@dju.kr

<sup>†</sup>이 논문은 2014년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서 1차 응급처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현장의 최전방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병원, 소방 구급대 및 산업체 의무실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응급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직업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일치할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과 자존감을 중시하는 사회로 직업선택 시 자신의 흥미나 적성 못지않게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직업군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직업이미지를 가지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직업 또는 장래에 갖게 될 직업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2],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높은 동기가 필요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응급의료 활동에 쏟아 붓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요구된다[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자신과 타인을 포용할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반면,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도전이나 모험심이 적고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4].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를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영향력과 가치가 있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지각한다고 하였다[5].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 주위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현실에 잘 적응할 것이며, 스스로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서 자신의 성격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6]. 따라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흥미나 적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성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1],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응급구조사의 직업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구조사들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업무에 가치를 부여하고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응급의료전문요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가짐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7].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전문요원으로서 이들에 대한 직업의 이미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응급의료전문직으로서 계속 향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응급구조사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며,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24시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생활이 자신을 바라보는 내적지침이 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바람직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8]. 그러므로 기존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un 등[9]과 Uhm과 Kim[10]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구조사(119 구급대원 포함)나 응급구조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된 이미지는 간호학에서 개발된 도구

를 사용한 것으로 진정한 응급구조사(119 구급대원 포함) 직업이미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Q방법론에 의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대해 도출된 진술문을 척도화하여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특성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G시 및 J도에 있는 4개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5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은 4개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532부를 배부하여 511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자 중 내용이 부적절한 8부를 제외한 503부를 본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 4.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3문항) 및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28문항) 등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도구는 Yi와 Oh[8]의 Q방법론 연구에서 도출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28개 Q-진술문을 원저자에게 도구 사용여부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후 5점 Likert 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28개 Q-진술문을 5점 Likert 척도화 후 응답자별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적 리더, 전문·성실성, 현장대응, 안정추구, 위기중재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분석과정에서 요인에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5개 문항을 분석과정에서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23개 문항을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주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아주 동의한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사회적 리더의 Cronbach's  $\alpha$ 는 .850, 전문·성실성의 Cronbach's  $\alpha$ 는 .720, 현장대응의 Cronbach's  $\alpha$ 는 .690, 안정추구의 Cronbach's  $\alpha$ 는 .640, 위기중재의 Cronbach's  $\alpha$ 는 .601이었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0이었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는 Rosenberg[11]가 개발하고

Jeon[12]이 번역한 도구로 긍정적인 문항(6문항)과 부정적인 문항(4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대상자 개인의 특성인 독립변수로서 전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 총점 분포를 확인한 후 낮은 집단(16~33점)과 중간집단(34~37점) 및 높은 집단(38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Jeon[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20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0이었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 SPSS Versio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와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D시와 G시 및 J도의 일부 지역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로 국한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므로 전국의 모든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 Ⅲ. 연구 결과

## 1.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성별에서 남자 286명(56.9%), 여자 217명(43.1%), 4년제 학생은 270명(53.7%), 3년제 학생은 233명(46.3%)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1학년(155명, 30.8%)과 3학년(152명, 30.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입학동기에서 대상자의 162명(32.2%)이 '적성과 흥미', 대상자의 107명(21.3%)은 '직업적 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학과수업'(278명, 55.3%)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지 중 응급구조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없다'가 대상자의 467명(92.8%)이었으며, 졸업 후 희망근무지는 '소방 구급대'가 대상자의 248명(49.3%)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료봉사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378명(75.1%)이 경험이 없었으며, 실습경험에서 '소방실습'과 '병원실습' 각각에서 423명(84.1%)과 323명(64.2%)이 실습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중간집단(34~37점)은 172명(34.2%), 높은 집단(38점 이상)은 168명(32.4%), 낮은 집단(16~33점)은 163명(33.4%)으로 나타났다.

## 2.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의 영향요인 분석

각 요인별로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의 전체 평균은 3.64( $\pm 0.37$ )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전문·성실성 4.07( $\pm 0.58$ )점, 현장대응 4.06( $\pm 0.56$ )점, 사회적 리더 4.03( $\pm 0.50$ )점, 위기중재 3.94( $\pm 0.64$ )점, 안정추구 2.57( $\pm 0.69$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는 남자가 3.68( $\pm 0.39$ )점으로 여자 3.59( $\pm 0.32$ )점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64, p < .01$ ). 또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503)

	Variables	N (%)	Mean $\pm$ SD
Gender	Male	286 (56.9)	
	Female	217 (43.1)	
Age (yr)			21.9 $\pm$ 2.16
Religion	Yes	229 (45.5)	
	No	274 (54.5)	
Entrance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162 (32.2)	
	School grade	40 ( 8.0)	
	Relatives advice	74 (14.7)	
	Job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49 ( 9.7)	
	Service job	38 ( 7.6)	
	Professional magnetism	107 (21.3)	
Major difficulties	Others	33 ( 6.6)	
	Classmates relations	39 ( 7.8)	
	Major classes	278 (55.3)	
	practice	100 (19.9)	
Paramedic relatives	Others	75 (14.9)	
	Yes	36 ( 7.2)	
Type of educational system	No	467 (92.8)	
	College	233 (46.3)	
Grade	University	270 (53.7)	
	First	155 (30.8)	
	Second	139 (27.6)	
	Third	152 (30.2)	
Hope place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Fourth	57 (11.3)	
	School	14 ( 2.8)	
	Hospital	174 (34.6)	
	Fire fighting officer	248 (49.3)	
	Industrial infirmary	31 ( 6.2)	
Volunteer medical service	Others	36 ( 7.2)	
	Yes	125 (24.9)	
Fire fighting practice	No	378 (75.1)	
	Yes	80 (15.9)	
Hospital practice	No	423 (84.1)	
	Yes	180 (35.8)	
Self-esteem	No	323 (64.2)	
	Higher group ( $\geq 38$ )	168 (32.4)	
	Intermediary group (34~37)	172 (34.2)	
	Lower group (16~33)	163 (33.4)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paramedic job image (N=503)

	Categor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pm$ SD
Paramedic job image	Crisis intervention	2.00	5.00	3.94 $\pm$ 0.64
	Seeking for stability	1.00	5.00	2.57 $\pm$ 0.69
	Field response	2.40	5.00	4.06 $\pm$ 0.56
	Specialism and sincerity	1.00	5.00	4.07 $\pm$ 0.58
	Social leader	2.50	5.00	4.03 $\pm$ 0.50
	Total		2.75	4.71

Table 3. Paramedic job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to be continued

Variables	Paramedic job image											
	Crisis intervention		Seeking for stability		Field response		Specialism and sincerity		Social leader		Total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Female	3.96±0.64	0.81	2.67±0.70	4.14	4.08±0.57	0.92	4.08±0.60	0.51	4.08±0.54	2.40	3.68±0.39	2.64
	3.92±0.64		2.42±0.65		4.04±0.54		4.05±0.55		3.97±0.43		3.59±0.32	
Religion	3.96±0.66	0.63	2.55±0.74	-0.38	4.09±0.55	0.95	4.10±0.60	1.18	4.08±0.49	1.90	3.66±0.37	1.37
	3.93±0.61		2.58±0.64		4.04±0.56		4.04±0.55		3.99±0.49		3.62±0.36	
Grade	4.05±0.61 <sup>b</sup>		2.66±0.65 <sup>b</sup>		4.13±0.48		4.10±0.50		4.01±0.45		3.66±0.32 <sup>b</sup>	
	4.00±0.55 <sup>b</sup>	5.05	2.64±0.68 <sup>b</sup>	5.17	4.12±0.52	3.18	4.11±0.58	1.47	4.08±0.47	2.17	3.70±0.35 <sup>b</sup>	4.27
	3.86±0.68 <sup>ab</sup>		2.52±0.73 <sup>ab</sup>		3.96±0.67		3.99±0.67		4.05±0.59		3.61±0.43 <sup>ab</sup>	
	3.74±0.70 <sup>a</sup>		2.28±0.63 <sup>a</sup>		4.03±0.49		4.05±0.47		3.89±0.38		3.52±0.28 <sup>a</sup>	
Classmates relations	3.99±0.82		2.56±0.75		4.07±0.63		4.02±0.56		4.00±0.54		3.62±0.38	
	3.92±0.61	0.37	2.54±0.64	0.66	4.06±0.53	1.54	4.06±0.56	1.14	4.02±0.48	1.19	3.63±0.36	1.76
Major difficulties	3.91±0.64		2.52±0.76		3.97±0.63		3.99±0.62		3.96±0.49		3.58±0.36	
	3.99±0.61		2.66±0.68		4.15±0.50		4.15±0.56		4.10±0.48		3.71±0.36	
Aptitude and interest	4.00±0.64		2.58±0.67		4.14±0.56 <sup>ab</sup>		4.13±0.62		4.07±0.52 <sup>ab</sup>		3.68±0.37 <sup>ab</sup>	
	3.98±0.55		2.50±0.66		3.87±0.56 <sup>a</sup>		3.95±0.52		3.97±0.49 <sup>a</sup>		3.57±0.36 <sup>ab</sup>	
Relatives advice	3.86±0.69		2.61±0.70		3.98±0.57 <sup>ab</sup>		3.94±0.57		3.95±0.51 <sup>a</sup>		3.59±0.39 <sup>ab</sup>	
	3.89±0.52	1.46	2.41±0.61	0.91	3.86±0.56 <sup>a</sup>	4.37	3.89±0.55	3.88	3.93±0.53 <sup>a</sup>	4.60	3.54±0.40 <sup>a</sup>	4.00
Entrance job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4.11±0.71		2.72±0.93		4.30±0.60 <sup>b</sup>		4.26±0.58		4.35±0.38 <sup>b</sup>		3.82±0.35 <sup>b</sup>	
	3.94±0.63		2.57±0.69		4.12±0.48 <sup>ab</sup>		4.16±0.47		4.05±0.43 <sup>ab</sup>		3.66±0.31 <sup>ab</sup>	
Others	3.74±0.66		2.51±0.55		3.98±0.57 <sup>ab</sup>		3.88±0.58		3.85±0.47 <sup>a</sup>		3.51±0.34 <sup>a</sup>	

(N=503)

Table 3. Paramedic job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Paramedic job image											
	Crisis intervention		Seeking for stability		Field response		Specialism and sincerity		Social leader		Total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No	3.98±0.67	0.74	2.60±0.74	0.56	4.11±0.56	1.15	4.07±0.70	0.00	4.13±0.53	2.60	3.63±0.39	1.95
Yes	3.93±0.62		2.56±0.67		4.05±0.56		4.07±0.53		4.00±0.48		3.68±0.36	
Fire fighting practice	3.88±0.67	1.05	2.46±0.70	1.47	4.03±0.52	0.64	4.05±0.48	0.22	4.02±0.51	0.29	3.62±0.36	0.59
No	3.96±0.63		2.59±0.68		4.07±0.57		4.07±0.59		4.03±0.49		3.64±0.37	
Yes	3.79±0.66	3.98	2.45±0.71	2.88	3.91±0.60	4.65	3.94±0.57	3.70	3.94±0.51	3.10	3.54±0.37	4.80
No	4.03±0.61		2.63±0.67		4.15±0.52		4.14±0.57		4.08±0.48		3.70±0.35	
Higher group	4.17±0.65 <sup>b</sup>		2.67±0.81		4.30±0.55 <sup>b</sup>		4.32±0.60 <sup>b</sup>		4.31±0.52 <sup>c</sup>		3.83±0.40 <sup>c</sup>	
Self-esteem	3.89±0.56 <sup>a</sup>	18.03	2.53±0.62	3.04	3.98±0.53 <sup>a</sup>	25.96	3.98±0.54 <sup>a</sup>	29.62	3.97±0.39 <sup>b</sup>	52.72	3.59±0.30 <sup>b</sup>	44.03
Lower group	3.77±0.63 <sup>a</sup>		2.49±0.61		3.91±0.52 <sup>a</sup>		3.88±0.50 <sup>a</sup>		3.81±0.43 <sup>a</sup>		3.49±0.30 <sup>a</sup>	

지 5개의 하부영역 중 안정추구( $t = 4.14, p < .001$ )와 사회적 리더( $t = 2.40, p < .05$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F = 4.27, p < .01$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결과, 2학년이 1학년과 3학년 및 4학년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5개의 하부영역 중 위기중재( $F = 5.05, p < .01$ )와 안정추구( $F = 5.17, p < .01$ ) 및 현장대응( $F = 3.18,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정결과 위기중재와 안정추구에서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입학동기에 따른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F = 4.00, p < .001$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결과,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답한 학생이  $3.82(\pm 0.35)$ 점으로, ‘적성과 흥미’  $3.68(\pm 0.37)$ 점, ‘직업적 매력’  $3.66(\pm 0.31)$ 점, ‘가족친지권유’  $3.59(\pm 0.39)$ 점, ‘입시 성적’  $3.57(\pm 0.36)$ 점, ‘졸업 후 취업기회’  $3.54(\pm 0.40)$ 점, ‘기타’  $3.51(\pm 0.34)$ 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입학 동기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5개 하부영역 중 현장대응( $F = 4.37, p < .001$ ), 전문·성실성( $F = 3.88, p < .001$ ), 사회적 리더( $F = 4.60,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정결과 현장대응과 사회적 리더에서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료봉사경험유무에서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5개의 하부영역 중 사회적 리더( $t = 2.60, p < .01$ )에서만 ‘경험 있음’이 ‘경험 없음’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경험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방실습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병원실습에 따른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는 ‘경험 없음’  $3.70(\pm 0.35)$ 점이 ‘경험 있음’  $3.54(\pm 0.37)$ 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4.80, p < .001$ ). 병원실습은 5개 하부영역 중 위기중재( $t = 3.98, p < .001$ ), 안정추구( $t = 2.88, p < .001$ ), 현장대응( $t = 4.65, p < .001$ ), 전문·성실성( $t = 3.70, p < .001$ ), 사회적 리더( $t = 3.10, p < .001$ )에서 ‘경험 없음’이 ‘경험 있음’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 따른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F = 44.03, p < .001$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e 사후검정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3.83 \pm 0.40$ 점)과 중간 집단( $3.59 \pm 0.30$ 점)이 낮은 집단( $3.49 \pm 0.30$ 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의 하부영역 중 위기중재( $F = 18.03, p < .001$ ), 안정추구( $F = 3.04, p < .05$ ), 현장대응( $F = 25.96, p < .001$ ), 전문·성실성( $F = 29.62, p < .001$ ), 사회적 리더( $F = 52.72, p < .001$ )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위기중재, 안정추구, 현장대응, 전문·성실성, 사회적 리더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일반적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간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는 학년과 병원실습경험에서 부적상관관계, 자아존중감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aramedic job image (N = 503)

	A*	B†	C‡	D§	E	F¶
B†	-.02	1				
C‡	-.12	.62	1			
D§	.06	.18	.16	1		
E	-.21	.46	.78	.12	1	
F¶	-.03	.24	.46	.03	.53	1
G**	.41	.19	.08	.16	.05	.03

\* A: Paramedic job image, † B: Age, ‡ C: Grade, § D: Volunteer medical service, || E: Hospital practice, ¶ F: Fire fighting practice, \*\* G: Self-esteem

Table 5. Effect factors on paramedic job image (N = 503)

Independent variables*	Job image	
	$\beta$	
Gender	Male	-.03
	Female	-
Religion	Yes	.02
	No	-
Grade	First	-
	Second	.06
	Third	.09
	Fourth	.03
Major difficulties	Classmates relations	-.03
	Major classes	-.10
	Practice	-.10
	Others	-
Entrance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14
	School grade	.04
	Relatives advice	.06
	Job opportunities after graduation	.03
	Service job	.19
	Professional magnetism	.10
Volunteer medical service	Yes	.02
	No	-
Fire fighting practice	Yes	.12
	No	-
Hospital practice	Yes	-.30
	No	-
Self-esteem	Higher group	.41
	Intermediary group	.12
	Lower group	-
Adjusted R <sup>2</sup> = .220, F = 8.27, p < .001		

\*Independent variables (Standard of dummy variables): Gender (Female), Religion (No), Grade (First), Major difficulties (Others), Entrance motivation (Others), Volunteer medical service (No), Fire fighting practice (No), Hospital practice (No), Self-esteem (Lower group)

## 5.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을 가변수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응급구조(학)과 입학동기 중 봉사직업( $\beta = 0.19$ ) 및 소방실습경험( $\beta = 0.12$ ), 병원실습경험( $\beta = -0.30$ ),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중간집단( $\beta = 0.41$ ,  $\beta = 0.12$ ) 등으로 회귀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220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로 통계적으로 유의( $F = 8.27$ ,  $p < .001$ )하였다.

## IV. 고 찰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4점으로, Yun 등[9]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와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조사한 Han 등[13]의 연구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Uhm과 Kim[10]의 119 구급대원에 대한 이미지 점수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응급구조사가 병원단계 업무에서 접하는 간호사와 그 외 의료종사자보다는 병원 전단계의 일반인과 응급구조(학)전공 학생들에게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응급구조사가 다양한 방면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의료인이 없는 병원 전 단계에서 능숙하게 응급현장을 처리하는 구급대원의 이미지를 좋게 갖고 있기 때문이며, 학생들이나 경우

에는 졸업 후 희망직업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Choi와 Lee[14]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71.5%가 향후 응급구조사의 직업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서 대상자의 성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Han 등[13]과 Yun[15]의 결과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구조사라는 업무적 특성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Lee[14]의 연구에서는 86.6%의 대상자가 남녀 상관없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답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5개의 하부영역 중 안정추구와 사회적 리더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병원과 소방구급대 및 산업체에서 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소방구급대를 생각하고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인 119 구급대원이 주도적으로 현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년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과 4학년보다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분석된 것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조사한 Yang[16]과 Choi와 Ha[17]의 연구결과와 같다. 또한, 학년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5개의 하부영역 중 위기중재와 안정추구 및 현장대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저학년 학생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가 고학년 학생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 입학동기 중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분석되었으며, 특히 5개 하부영역 중에서는 현장대응과 전문·성실성 및 사회적 리더에서 유의성이 나타났

다. 이것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조사한 Kim[18]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Yang[16]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최전방에서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봉사적인 의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봉사경험에서는 5개의 하부영역 중 사회적 리더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대상자가 참여한 의료봉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는 없으나 의료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참여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능동적인 학생들이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학생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 정도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병원실습경험에서는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뿐만 아니라 5개 하부영역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특히, 병원실습경험이 없는 학생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점수가 병원실습 경험 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은 학생들이 병원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조직에서의 위치 등을 경험한 후 직업이미지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병원실습경험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비교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병원단계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들이 병원 전 단계에서 일하는 119 구급대원들에 비해 업무범위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1학년과 2학년)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점수가 고학년(3학년과 4학년)에 비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향후 병원실습경험과 학년에 따

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가 저하되는 원인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중간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5개의 하부영역 뿐 아니라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서 볼 때 스스로를 만족하고 높이 평가하는 학생들일수록 향후 자신이 갖게 될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2.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일반적인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와 상관계에서는 학년과 병원실습경험에서 부적 상관관계( $p < .05$ ), 자아존중감에서 정적 상관관계( $p < .05$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Kim[18]과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Yang[16]의 연구결과와 같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회귀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220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특성 중 응급구조(학)과 입학동기(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  $\beta = 0.19$ )와 소방실습경험(있음,  $\beta = 0.12$ ) 및 병원실습경험(있음,  $\beta = -0.32$ ), 자아존중감(높은 집단이  $\beta = 0.41$ , 중간 집단이  $\beta = 0.12$ ) 등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학생들과 소방실습을 다녀온 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의료현장의 최전

방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본 학생들에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점수가 높은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병원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인 경우 임상현장 내에서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간의 관련성을 비교해보고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미래의 응급구조사로서 활동하게 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21) progra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13문항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28문항으로 총 41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응답식 설문지로 일부지역 4개 대학 학생들(5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4(±0.37)점, 5개의 하부영역으로 분류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는 전문·성실성(4.07±0.58점), 현장대응(4.06±0.56점), 사회적 리더(4.03±0.50점), 위기중재(3.94±0.64점), 안정추구(2.57±0.69점)의 순이었다.

- 2)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의 정도에서는, 성별( $t = 2.64, p < .01$ ), 학년( $F = 4.27, p < .01$ ), 응급구조(학)과 입학동기( $F = 4.00, p < .001$ ), 병원실습경험( $t = 4.80, p < .001$ ), 자아존중감( $F = 44.03,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간의 관계에서는 학년과 병원실습경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 4)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의 회귀모형의 수정된  $R^2$ 값은 .220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로 선택 동기(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  $\beta = 0.19$ )와 소방실습경험(있음,  $\beta = 0.12$ ) 및 병원실습경험(있음,  $\beta = -0.30$ ), 자아존중감(높은 집단이  $\beta = 0.41$ , 중간 집단이  $\beta = 0.12$ )에서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 1)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소재한 3년제 2개 응급구조과와 4년제 2개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전국에 분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 2) 병원실습경험 전과 후 및 학년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업이미지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Jang BK, Kim BS. The influence of self-congruity between preference vocational image and self-image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pa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007;20(1):27-44.
2. Ko DW, Chun BG. The concept and measurement scale of job-esteem: The case of undergraduates majoring tourism studi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002;26(3): 279-97.
3. Kim MS, Kim NH. Impact of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1;5(2):147-55.
4. Kang SG. The power of self-esteem (Branden N). Seoul: Hakjisa, 1994. 146.
5. Choi YS, Lee KS. Qualitative inquiry on university faculty and staffs member' stress reduction and improve self-esteem through pilates. *Soonchunhyang J Nat Sci* 2007;13(2):133-44.
6. Son YJ. Effects of self-assertion training on the girl's self-esteem of vocational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2001, Ulsan, Korea.
7. Song IJ.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s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Nurse* 1994; 30(1):423-41.
8. Yi IS, Oh JH. A study on the job image of EM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08;16: 149-60.
9. Yun JG, Chung Y, Park MY. Analysis on image and job perception of emts among nurses.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2004;9(2):41-57.
10. Uhm DC, Kim JW. 119 Rescuers' image of citize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5): 2259-66.
11.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326.
12.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1974; 11:107-30.
13. Han SY, Bae KS, Kim JU. Images of 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ived by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 Association* 2012;12(4):373-9.
14. Choi EY, Lee KY. Images towar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erceived by secondary school teachers. *Korean J Emerg Med Ser* 2014;18(1):29-41.
15. Yun SW. The imag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ived by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ine Science* 2012;5(1):24-9.
16. Yang YS. A study on the self-esteem and nurse image of th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3, Gwangju, Korea.
17. Choi J, Ha N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9;15(1):54-63.
18. Kim MY. A study on self-image and self-esteem of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1999, Seoul, Korea.